

“청탁이나 부탁이나, 이것이 문제로다”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이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2012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이 책을 보급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청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인사와 예산집행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알선 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법의 해석상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 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청

탁을 받고 그 청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후 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청탁 대응매뉴얼은 청탁을 통한 부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보다는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청탁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담을 느껴 공정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직자마다 개인차가 있는 윤리적 심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청탁개념을 사전에 엄격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양태를 반영한 의사 표시를 청탁의 범위로 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일반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과태료 과징금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요청, 단속 점검 등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특혜요청,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그러면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와,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각각 말한다.

이에 비해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일반국민이나 공직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요청·진정·지시·권한행사·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 요청, 민원인의 대리인이 하는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등은 청탁행위로 볼 수 없다.

또 기간간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 사실조회 등을 협력하는 행위, 결재권자(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인사부서가 직무상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등은 청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컨대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시이다. 반면에 부탁은 질의 요청 진정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직자에게 요청하고,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 주어야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특별기고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 청탁과 부탁의 차이

### 원광연 기자의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칭하는 말 17. 전기를 아껴 씀 18.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로 세계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고, 경제학자들로부터 각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세로열쇠** = 1. 말할 수 없이 괴상하고 야릇함. 2. 자유영, 접영, 배영, 평영 3. 생활 환경의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으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됨. 000운동 4.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마주 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며, 두 대각선이 중점

**가로열쇠** = 1. 해양수산, 어업진흥, 연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부서. 김남규 과장 3.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5.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별갈게 보이는 현상 6. 아버지의 누이 7.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인물 9.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10.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끈고 깨끗한 관리 12. 미혼 여자의 성 앞에 붙이는 호칭 또는 지칭 13. 중국 및 고려·조선에서의 상류계층을 일컫는 말로, 중국 고대 주나라 시대에 벼슬한 대 부와 사에서 비롯됐다 15. 여성의 다리 곡선의 아름다움을

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5. 프랑스어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르는 말 6. 아옹아옹 8.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청소 따위의 잔심부름을 담당하던 계집종 9.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11. 학문, 기술, 예술 등 자연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14.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16.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17. 클라이막스(climax).

※낱말 맞추기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정답을 적어 <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지난호(제47호) 정답

●정답자 : 이유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아촌리)

환	경	보	호	과				녹	음
	상							두	
	수	요	일				백	년	전
선	지		기	회	주	의			
악			예			의	사	진	행
과	밀		보			천			정
	가			해	인	사			고
시	루		요	리			여	수	시
금			행			빙	의		
치	산	치	수				주	전	자